



###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프롤로그 (1)

광주시는 지난 2009년 10월 광역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내 도시 중 가장 빠르게 인권도시를 향한 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도 'UN지정 인권도시' 공약을 내걸고 야심 차게 인권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이라는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인권지수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태로 인권도시 광주에 뼈아픈 상처를 안겼고, 또한 학교 내 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인권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광주지역 노약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인권실태 점검과 함께 '광주 인권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자, 항쟁의 거리였던 동구 금남로 1가 옛 전남도청~광주 카톨릭센터 구간 518m가 지난해 9월5일 '유네스코 민주 인권로(路)'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빈 유네스코 의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존엄한 행복 공동체를 위하여

'인권도시'가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수년 전 시작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이제는 인권도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는 소수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부분별 인권조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역할모델이 되어 온 광주는 인권조례 제정 등을 바탕으로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드웨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 공동체에서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헌장, 인권지수 등의 거창한 인권정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광주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제정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도시' 왜 광주인가=광주는 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민주·인권·평화

## 광주학생독립운동·518민주화운동 선도적 역할 주도 서비스업종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제도화 제정 시급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들어 광주는 항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앞서왔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5·18 민주화운동 경험을 아시아에 알리고 광주 인권상 제정과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광주가 이미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광주 인권상은 아시아에서 인권분야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아시아의 많은 인권활동가들은 매년 국립 5·18 묘지를 마치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하듯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도 부산에 이어 국내에는 두 번째로 지난 2005년 설립돼 '인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지하철 김대중 컨벤션센터 역사를 인권테마역사로

지정해 인권음악회와 인권 UCC 경연대회 등 인권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각 계층별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의 역할도 해왔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5월 '2011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개최해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 10여 개 인권도시와 유엔관계자, 해외시민사회 인권전문가 30여 명,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도시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과 운동을 소개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도시의 모델 등이 논의됐다. 이처럼 광주가 인권도시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진정한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 여부는 어떻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생활밀착형 인권에 관심=인권도시 만들기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인권 실현이자 탈 이념적 생활밀착형 인권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시민과 주민의 일상적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는 인화학교 사태, '도가니'사태로 인해 인권도시로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 사회적 절대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인권도시로 향해 달려가는 광주의 발목을 잡았다.

인권이 가장 절실한 곳에 인권을 없앴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십 년 동안 이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광주의 인권을 땅에 떨어뜨렸다. 또한,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

만,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교사의 체벌에 불만을 품은 여학생이 교사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교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인권과 관련된 각종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최근의 한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단순한 조례 제정보다는 모든 부문에서 시민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함께 대형 마트, 콜센터 등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정강 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은 "광주시가 인권헌장, 인권지수 개발 등의 인권 행정에 치중하고 있지만, 진정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전환과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인권조례에 제시된 공무원의 인권교육 참여와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화 프로그램이 상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인권의 정의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권리로서 그것 없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지능, 그리고 재능과 양심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 육구 및 기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다.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 (매매나 임대)

<건물 구함>

- 일반 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 창고와 공장건물

<토지 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20개 대출4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상가건물 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 접, 농지전용완료,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2725평) 평당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음 자연녹지 11,463m(3,468평) 평당 70만원
- 광산구 양동 계획관리지역 28,845m(8,726평)매도가 21억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 (법임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다가구주택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60평 건평95평 감정가1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 공장및농가시설

- 무안군 해제면 공장 대지600평 건물330평 감정가7억 최저가 1억4천만
- 화순군 능주면 목장용지 대지1700평 농가시설760평 감정가5억2천만 최저가 2억6천만

#### 전원주택

- 담양군 봉산면 단독주택 대지382평 건평220평 감정가1억4천만 최저가1억
- 나주시 남평면 단독주택 대지380평 건평40평 감정가 7천만 최저가 5천만

#### 근린주택

- 광산구 비어동 삼기맞다기구 대지50평 건물123평 4층건물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은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 대인동상임부동산

좋은 지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이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 소재사건내편)